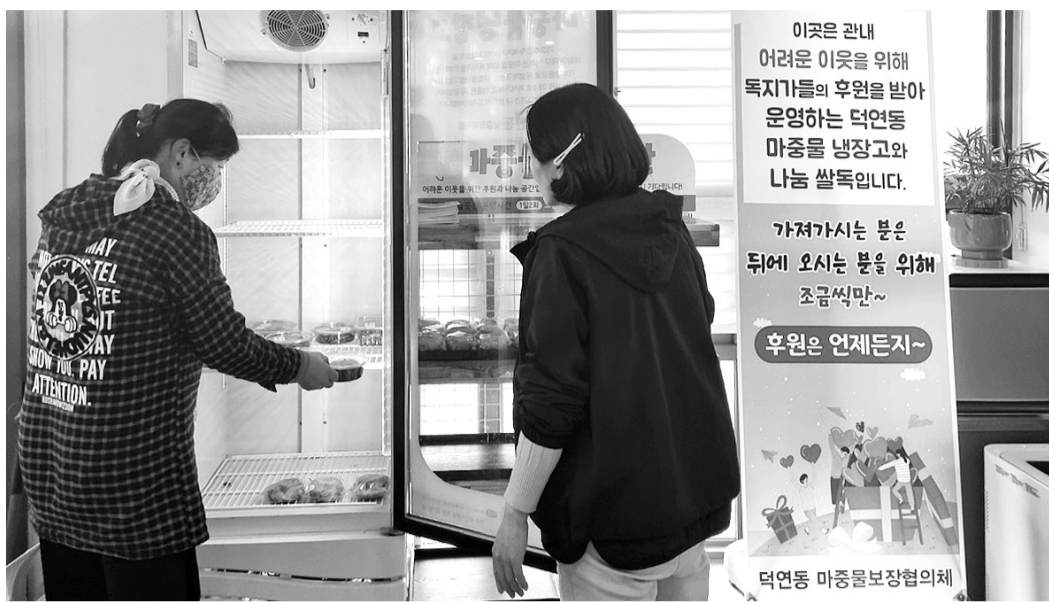


순천 덕연동 '기부공간' 온정 넘친다

기부물품 후원 '마중물냉장고' 7년간 3억3600만원 어치 모여 주민들 기부로 소외이웃 돕기

연말 온정이 기다려지고 있는 가운데 순천의 한 동네에서 7년째 운영되고 있는 '기부 공간'이 주민들의 '사랑나눔'으로 여전히 가득 차 관심이다.

화제의 공간은 바로 순천시 덕연동행정복지센터의 '마중물 냉장고'. 지난 2017년 덕연동 주민들의 뜻을 모아 운영하기 시작한 '마중물 냉장고'는 관내 반찬가게·빵가게·떡집·교회·식당 등의 물품 기부를 통해 독거노인 등 저소득계층의 이웃을 돕는 주민 자발적인 복지프로그램이다. 후원은 빵·떡·반찬·음식 등 식품류와 쌀·마늘·파 등 농산물로 다양하다.



순천시 덕연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불우이웃돕기 후원 물품을 기증하는 '마중물냉장고'가 7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가져가는데, 대부분의 물품은 냉장고 오픈 1시간 내에 소진된다고 한다. 복지센터 1층 민원실에 배치된 '마중물 냉장고'는 휴일(토·일요일)을 제외하고 1년 365일 운영된다.

후원자 중에는 밤에서 방금 수확한 농산물을 그대로 가져와 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삼계탕 50인분을 직접 요리해 기부한 경우도 있다.

덕연동 주민들의 열정이 7년간 마중물 냉장고의 '마중물'이 단 하루도 마르지 않도록 하는 힘이 있다. 이같은 '중단없는 기부'에 대해 타지역이나 기관

에서의 문의도 적지않다고 복지센터측은 말한다.

덕연동행정복지센터 김양희 동장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성숙한 나눔의식은 덕연동의 자부심이다. '마중물 냉장고'가 멈추지 않고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덕연동에서는 '마중물 냉장고' 뿐만 아니라 소액의 후원자들도 발굴해 조금 더 많은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 이순신도서관, 전남 '최우수도서관' 선정

48개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 1위

여수시 이순신도서관이 전라남도의 '올해의 최우수 도서관'에 선정됐다.

여수시에 따르면 전남도가 도내 48개 시·군립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시민들의 도서장려와 인문학 확산에 앞장서 온 이순신도서관이 1위의 영예를 안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서관 규모에 따라 A·B·C그룹으로 나눠 도서 서비스·장서 보유 현황·시설 공간 활용도 등 7개 항목과 12개 지표로 종합해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순신도서관은 A그룹에 포함됐다.

지난 2019년 개관한 이순신도서관은 약 11만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1일 평균 방문자가 2천여명

에 이르는 여수시의 대표적 공공도서관이다.

이번 평가에서 이순신도서관은 '청년 도서구입비 지원', '4차 산업 교육', '북스타트 꾸러미 배부' 등 다양한 독서 장려 프로그램을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청년도서구입비 지원은 이순신도서관을 통해 도서관측과 협약을 맺은 서점의 책을 구입하는 청년(18~45세)에게 책 값의 50%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이순신도서관은 인문학강연회, 시민 책 쓰기 '어쩌다작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지역민의 문화 수요 충족 및 인문학 확산에 기여했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어쩌다작가' 프로그램은 상반기 글쓰기, 하반기 책편집을 주제로 총 18회 진행됐으며, 성인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던 프로그램으로 꼽혔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보성·여수·순천·고흥, 여자만 보존관리 손 잡았다

'해양보호구역대회' 개최

지속 가능한 보전 협약 체결

보성군의 '제17회 해양보호구역 대회'가 지난 7일 별교스포츠클럽센터 내에서 열렸다.

해양수산부 주최, 보성군·전라남도·해양환경공단 공동 주관의 이번 대회는 해양보호구역의 보전·관리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우수해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에 대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 대회에는 김철우 보성군수를 비롯한 해양수산부와 전국 해양보호구역 지자체 담당자, 지역주민·단체, 관련기관 전문가 등 300명이 참석했다.

보성·여수·순천·고흥 4개 시·군이 포함된 여자만 권역의 해양보호구역은 지난 2003년 보성별교갯벌과 순천만갯벌에 이어, 2022년 고흥갯벌·2024년 여수갯벌 순으로 지정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여자만 국가 해양 생태 공원 사업' 연계와 더불어 보성·여수·순천·고흥 4개 시·



'여자만 국가 해양 생태 공원 사업' 연계와 더불어 보성·여수·순천·고흥 4개 시·군이 여자만 갯벌의 현명한 이용과 체계적 보전 관리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협약식을 가졌다. <보성군 제공>

군이 여자만 갯벌의 현명한 이용과 체계적 보전 관리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협약식도 진행됐다. 또한 여자만 전역이 해양보호구역 지정된 사실을 기념해 해양 생태 자원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해양보호구역(습지, 갯벌) 탄소흡수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이어 통영시 선촌어촌계의 '잘피어라 해양보호구역'이라는 주제의 우수사례 발표,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최진기 사무국장의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 추진 및 보호 관리 초청 특강이

진행됐다.

해양보호구역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남대학교 류종성 교수, 안양대학교 성하철 교수, 동아시아연구소 사리지역센터 서승오 센터장의 지속 가능한 해양 환경 보전활용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도 개최됐다.

이와 함께 가수 이매진 씨의 축하 공연과, 예코 캠페인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 박진희의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을 위한 에코라이프'라는 주제의 강연을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농협곡성군지부, 쌀 소비촉진 캠페인

곡성쌀로 만든 가공식품 등 홍보

"맛 좋고 영양이 높은 곡성 쌀 가공식품 드세요."

농협곡성군지부가 농업인의 날을 맞아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지난 11일 펼쳤다.

이날 옥과농협 문화센터에서 열린 캠페인은 옥과농협 여성조합원 120여명을 대상으로 쌀 가공식품 홍보 활동을 펼쳤다.

<사진> 이날 캠페인에서는 카페 스노우베리와 협업을 통해 출시한 '바로미동휘낭시에'를 조합원들에게 나

눠주며 쌀 가공식품 소비 증대와 아침밥 먹기 캠페인 동참을 호소했다.

캠페인에 활용된 바로미동휘낭시에에는 곡성에서 생산된 가루쌀 품종인 바로미2를 사용해 기존 쌀 휘낭시에에 보다 2.5배 길게 만들었으며, 솔터·무화과·아몬드·초코 등 6가지의 맛으로 만들어졌다.

방현용 농협곡성군지부 지부장은 "쌀 소비확대를 위해 건강하고 맛 좋은 쌀 가공식품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2@kwangju.co.kr

구례군 '농업인의 날' 900여명 참석 성료

채준석씨 '우수농업인 대상' 수상

'제10회 구례군 농업인의 날' 행사가 지난 11일 구례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농업인의 날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지역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군내 13개 농업인 단체와 관계 기관 관계자 등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진 구례농업의 힘찬 도약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농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농업인들을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최고의 영예인 '우수농업인 대상'은 시설원에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채준석 씨에게 돌아갔다.

이 외에도 농업인 권익 향상과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5명의 유공자가 표창을 받았다.

또한 구례군 4-H본부는 우수한 학생 4-H 회원 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탤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